

서당 이덕수의 天道와 天命에 대한 인식

- 短命한 亡者를 위해 지은 시문을 중심으로 -

이황진*

|| 차례 ||

- I. 머리말
- II. 계유년(1693)의 충격 - 천도와 천명에 대한 고민의 시작
- III. ‘天道’에 대한 이덕수의 인식
- IV. ‘天命’에 대한 이덕수의 인식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18세기 전반 소론계의 대표적 관료 문인인 서당 이덕수(1673~1744)가 단명한 망자를 위해 지은 다양한 시문을 중심으로 이덕수의 천도(天道:하늘의 바른 도리)와 천명(天命:타고난 수명, 타고난 운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글이다.

『서당사재』는 저자인 이덕수 자신이 생전에 시문을 정리하고 자편한 문집인데, 문집에 수록된 첫 번째 작품은 계유년(1693)에 지은 <숙심면중만(叔沈勉仲挽)>이다. 이 만시는 이덕수가 계유년에 겪었던 부인 및 여러 명의 젊은 친인척의 죽음을 마주한 후 갖게 된 천도와 천명에 대한 의구심을 담고 있다. ‘단명’은 그 자체가 천도와 천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만큼 비통한 일이다. 이 만시를 문집의 첫 작품으로 선정하여 수록한 것은 천도와 천명에 대한 그의 관심과 고민이 반영된 편집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구전담 조교수

이덕수는 천도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올바른 정의이고 도리이긴 하지만 그것이 지켜지느냐 어긋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며, 그러하기에 의심하고 또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 천도라고 인식하였다.

요절한 사람들의 천명에 대해 이덕수는 물건이 너무 깨끗하면 더러움을 타기 쉽고 기운이 너무 맑으면 흩어지기 쉬우며, 곱게 피는 꽃이 일찍 시드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남들보다 빼어난 품성과 재주를 가진 이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수명이 그것뿐이므로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인식하였다. 이는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뜬 이들의 죽음이 그 누구의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뜻일 뿐임을 밝힘으로써 그 죽음에 대한 충격과 비통함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했을 것이다. 반면, 운명으로서의 ‘천명’에 대해서는 사람의 수명이 그러하듯이 사람의 운명 역시 하늘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있는 것이므로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다고 인식한다. 이는 운명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며, 운명에 대한 이덕수의 자세는 도덕적 수행을 중시하는 공자의 ‘지명(知命)’보다는 운명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는 장자의 ‘안명(安命)’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서당 이덕수, 천도, 천명, 수명, 운명, 단명

1. 머리말

사마천은 「백이열전」에서 백이숙제는 굶어 죽고 안회는 가난하게 고생하다 요절했는데 오히려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도척은 편안히 천수를 누린 사실을 근거로 들며 “천도는 치우침이 없어, 늘 선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天道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¹⁾ 탄식하며 천도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한 바 있다. 이것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갖게 되는 의구심일 것이다. 이는 역

사 속 유명인의 사례가 아니어도 누구나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도 그러한 하늘의 불공평함과 무심함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게 되기 때문일 것이며, 더 나아가 그러한 상황을 자신의 주변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면 그 의구심과 탄식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8세기 전반 소론계를 대표하는 관료 문인 西堂 李德壽(1673~1744, 字:仁老, 諡號:文貞)도 亡者를 위해 쓴 만시, 제문, 애사, 비지문 등에서 자주 天道와 命(天命, 運命)에 대해 언급하며 그에 대한 의문과 고민을 표출하였다. 특히 단명한 이들을 위해 쓴 작품에서 그러한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단명’ 자체가 천도와 천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만큼 비통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이덕수가 단명한 이들을 위해 지은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천도와 천명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²⁾

1) 司馬遷, <伯夷列傳>, 『史記』卷61, “或曰, ‘天道無親, 常與善人.’ 若伯夷叔齊, 可謂善人者非耶? 積仁聚行如此, 而餓死. 且七十子之徒仲尼, 獨薦顏淵爲好學, 然回也屢空, 糲糠不厭, 而卒蚤夭. 天之報施善人, 其何如哉? 盜跖日殺不辜, 肝人之肉, 暴戾恣睢 聚黨數千人, 橫行天下, 竟以壽終, 是遵何德哉? 儼所謂天道, 是耶?非耶?”

2) 본고는 이덕수가 단명한 망자들을 위해 지은 만시, 제문, 애사, 비지문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단명은 젊은 나이에 죽었음을 의미하기는 하나 몇 살까지의 죽음을 단명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사람마다 그 기준은 다를 수 있다. 필자는 이기순이 「고령신씨의 혼인·출산과 수명」(『한국사학보』 제10집, 2001, pp.108~109.)에서 분석한 조선시대 고령신씨 가문 남성의 평균수명을 참고해 본고에서는 36세를 단명의 기준선으로 삼았다. 이기순의 연구에 따르면, 1671~1680년생 남성의 평균수명은 55.50세, 1681~1690년생은 54.91세, 1691~1700년생은 51.46세, 1701~1710년생은 56.59세, 1711~1720년생은 54.51세, 1721~1730년생은 57.55세였다. 가문이나 지역별로도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라 판단된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덕수가 살았던 시대에 남성의 평균 연령은 54~55세 가량이다. 그것의 2/3인 36세 정도밖에 못살았다 한다면 단명이라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72세에 세상을 뜬 이덕수의 딱 절반의 나이이기도 하다.

이덕수 관련 연구는 문학론, 문장, 시, 불교관, 교유관계 등 여러 방면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³⁾ 선행연구 중 본 연구에서 주대상으로 삼은 비지문과 관련한 연구로는 강성숙과 장운선의 논문이 있지만,⁴⁾ 거기에서는 천도와 천명에 대한 인식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덕수는 『영조실록』에 기록된 줄기에 “이덕수는 문장이 博雅하여

-
- 3) 이덕수의 문학론 관련 선행 연구로는, 강민구의 「서당 이덕수의 문학론 연구」(『한문학보』 제1집, 우리한문학회, 1999)와 「이덕수의 문학 비평에 대한 연구」(『한문학보』 제2집, 우리한문학회, 2000.), 윤재환의 「서당 이덕수의 시론과 문장론의 재검토」(『동양고전연구』 제85집, 동양고전학회, 2021)가 있다. 문장 관련 연구는, 신복호의 「18세기 관각문학 연구 - 이의현, 이덕수, 서명응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박은정의 「서당 이덕수의 독서론과 주의론적 글쓰기」(『동방학』 제11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5.), 송호빈의 「이덕수 『파조록』에 대한 서지문헌학적 고찰」(『어문연구』 제41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조창록의 「『파조록』과 『파조속록』에 나타난 이덕수의 심학적 경향」(『동방한문학』 54, 동방한문학회, 2013.), 유정열의 「서당 이덕수의 산문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김묘정의 「서당 이덕수의 증서류 산문 일고찰 - 글쓰기 기법과 주제 구현 양상을 중심으로」(『한국민족문화』 제79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이 있다. 시문학에 관련한 논문으로는 유호선의 「서당 이덕수의 불교관과 시문학 연구」(『한문교육연구』 제18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장유승의 「이덕수의 시론과 시세계 - 22則의 評語를 중심으로」(『한국한시작가연구』 제14집, 한국한시학회, 2010.), 김효정의 「서당 이덕수의 동유 체험과 시적 형상화」(『동양한문학연구』 61, 동양한문학회, 2022.) 등이 있다. 불교 관련 연구로는 이승수의 「18세기 전반 사대부의 불교 이해」(『불교학보』 제39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2.), 유호선의 「17C 후반~18C 전반 경화사족의 불교수용과 그 시적 형상화: 김창흡, 최창대, 이덕수, 이하곤, 조귀명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이 있다. 교유관계 연구로는 이승수의 「17세기 후반 노소분기의 고민과 선택 - 서계 박세당의 고제자 서당 이덕수」(『문헌과 해석』 제16집, 문헌과 해석사, 2001.)와 「서당 이덕수의 사우 관계」(『한국고전연구』 제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이황진, 「서당 이덕수의 교유관계 고찰」(『열상고전연구』 제76집, 열상고전연구회, 2022.)이 있다.
- 4) 강성숙, 「기억을 통해 드러나는 18세기 사대부의 여성상 - 서당 이덕수의 어머니, 아내, 딸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38집, 겨레어문학회, 2007.; 장운선, 「서당 이덕수의 비지류 산문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一代의 宗匠으로 일컬어졌다.”⁵⁾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당대의 대문장가였다. 이는 그가 영조대에 문형을 두 번이나 맡았다는 사실과 당대 팔문장의 일원으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에서도⁶⁾ 그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유원(1814~1888)은 “금석문에 더욱 뛰어나 역사가의 필법을 깊이 터득하였다. 무릇 묘도를 꾸미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에게 달려가니 집 앞이 그들로 북적거렸다. 공이 이에 응하여 저술한 비·판·지·명이 가장 많아 그 글이 십수 권이 되었다.”⁷⁾며 이덕수가 당대에 묘도문자의 대가로 이름을 떨쳤음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이덕수의 문집 『서당사재』의 권5~권11에는 신도비명, 묘갈명, 묘지명, 묘표 등 비지문이 170여 편 수록되어 있으며, 『서당선생집』에는 『서당사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비지문 몇 편과 30여 편의 애사와 제문이 더 수록되어 있어 그가 망자를 위한 상당량의 작품들을 저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

필자가 본고에서 천도와 천명에 대한 이덕수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가 당대의 여느 작가들보다 망자를 위한 시문을 많이 남겼다는 사실이 중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한 시문을 통해 망자의 생애와 행적, 저자와 그 인물의 인연과 친분 등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자

5) 『영조실록』 영조 20년 갑자(1744) 5월 28일 기사, <우참찬 이덕수의 즐기>

6) 이덕수는 李天輔(1698~1761), 吳瑗(1700~1740), 南有容(1698~1773), 黃景源(1709~1787), 趙最壽(1670~1739), 趙龜命(1694~1737), 林象元(1709~1760)과 함께 당대 ‘八文章’으로 일컬어졌다. (李奎象, 『文藝錄』, 『并世才彥錄』)

7) 李裕元, 『吏曹判書西堂李公行狀』, 『嘉梧叢略』 冊19, “尤善於金石文 深得史氏法. 凡爲墓道飾者 必趨於公 門庭如市. 公輒應之所著碑版誌銘最多 爲十數卷.”

8) 본고에서 자료로 삼은 이덕수의 문집은 규장각 소장 『西堂私載』(한국문집총간 186.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와 전의이씨청강공파화수회에서 2000년 영인한 『西堂先生集』이다. 『西堂私載』가 주 자료가 되며, 거기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자료의 경우 『西堂先生集』을 참조하였다.

의 인생관이나 운명에 대한 인식 역시 엇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이덕수 자신이 첫 번째 부인, 동생, 아들, 딸 등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에 그 누구보다 천도와 천명에 대해 더 많이 고민했을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가 저술한 작품 중에서도 특히 그의 가족이나 주변의 단명한 이들을 위해 쓴 작품에는 천도와 천명에 대한 이덕수의 인식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통해 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도 그의 삶과 문학세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는 천도와 천명에 대한 이덕수만의 독특한 인식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덕수의 시문을 통해 그가 살았던 당대의 천도와 천명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살펴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천도와 천명은 유불도의 사상이나 교리 등에 초점이 맞춰진 심오한 개념의 것이라기보다는,⁹⁾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정도의 일반적 차원의 개념으로 천도는 ‘하늘의 바른 도리’라는 의미로, 천명은 ‘타고난 수명’ 혹은 ‘타고난 운명’이라는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9) 운명론, 죽음관, 천도론 등과 관련된 연구 몇 개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심규철, 「유·불·도 삼가의 운명론 - 명리학 운명론의 사상적 연원을 찾아서」, 『주역철학과 문화』 제1집, 한국역경문화학회, 2003.; 정병석, 「논어와 장자에 보이는 죽음관」, 『동양철학연구』 제55집, 동양철학연구회, 2008.; 이택용, 「중국 先秦시대의 命論 연구 - 맹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신진식, 「증산계 신종교와 유교, 도교의 죽음관 비교」, 『한국철학논집』 제58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8.; 조원일, 「공자의 천도론 사상에 대한 연구」, 『울곡학연구』 제39집, 울곡학회, 2019.; 이석현, 「동양사상의 운명론 쟁점 - 유불도 삼교사상을 중심으로」,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제85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20.; 이석현, 「동양의 운명론 연구 - 유불도 삼교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등이 있다.

II. 계유년(1693)의 충격 - 천도와 천명에 대한 고민의 시작

이덕수가 천도와 천명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음은 그가 망자를 위해 쓴 수많은 시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서당사재』는 저자인 이덕수가 생전에 자신의 시문을 정리한 자편 문집인데,¹⁰⁾ 특히 문집에 수록된 첫 번째 작품이 천도와 천명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담겨 있는 <叔沈勉仲挽>라는 사실은 주목해 볼 만하다. 문집에서 시는 권1과 권2에 21세(1693년)의 시부터 72세(1744년)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시 454제가 창작시기순으로 편집되어 있다. 그런데 21세인 계유년(1693) 이전에 지은 시는 한 수도 수록하지 않고,¹¹⁾ 그해 12월에 지은 <叔沈勉仲挽>를 첫 작품으로 수록한 데에는 이덕수의 특별한 편집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덕수는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동생과 자식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은 왜 그리 짧은 명을 갖고 태어난 것인가 혹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왜 그것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리 일찍 세상을 떠나야 했는가 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고민했는데 그러한 것이 이 만시를 문집의 첫 작품으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 시는 마치 이후에 펼쳐질 이덕수의 비애 가득한 삶의 서막을 여는 듯한 느낌을 주며, 그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고 고민할

10) 김경희, 『『서당사재』 해제』, 한국문집총간 186, 2000.

11) 『西堂私載』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徐宗泰(1652~1719)의 『晚靜堂集』 卷2에는 1690년(이덕수 18세) 이덕수와 나는 시 3제 4수(<杜門悄寂 甚懷李弟仁老德壽而不可見 且聞其日耽雜書 吾伊太勞 一詩以寄之>, <仁老次韻以來 時三冬無雪 歲且盡而始大雪 仁老復以詠雪一律來 遂次贈> 2수, <瀕行李弟仁老 以詠物言志古體數篇寄來 途中恩恩漫次 歸輒寄之 不細點檢也>)가 수록되어 있어 1693년 이전에 지은 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문제를 예견이나 한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팔월에는 內兄을 곡하고,	八月哭內兄
구월에는 從兄을 곡하였는데,	九月哭堂兄
시월에는 아내를 곡하게 돼,	十月哭室婦
침통함이 심장에 맺혀었습니다.	沉痛結心腸
지난 달에는 아저씨를 곡하고,	奈何一歲中
이번 달에는 만장을 씩니다.	淚目不曾乾
어찌하여 한 해 동안,	前月哭吾叔
눈물 마른 적이 없을까요.	今月寫哀章
인생이란 풀에 맺힌 이슬 같아,	人生若草露
오래 살기가 정말 그리 어려운건지.	久存良獨難
어제는 웃으며 말하던 사람,	笑言昨爲人
줄줄이 산속으로 돌아갑니다.	累累故山岡
대지가 몸 주었으니,	大塊賦形骸
태어나 죽는 것 원래가 당연한 이치건만,	生死固其常
장한 포부 가진 꽃다운 나이에 죽다니,	奇志殞芳年
이것 생각하면 슬퍼집니다.	念此使人傷
수명에 많고 적고 편벽됨이 있으니,	豐嗇有所偏
하늘의 살핍은 공평치가 않군요.	眞宰諒不公
이런 이치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此理欲誰問
하늘 쳐다봐도 한낱 꿈속같은 뿐.	視天徒夢夢

이 만시는 망자인 심면중에 대한 애도보다는 이덕수 자신이 계유년에 겪었던 충격적인 상황에 대한 한탄이 주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여느 만시와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8월에 내형을 곡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외삼촌 沈濡(1640~1684)의 셋째아들 沈景賢(1666~1693)¹²⁾으로 28세에 요절하였다. 9월에는 종형을 곡하였다 하였는데 이는 종숙부

李徵獻(1645~1694)의 아들 李德普(1673~1693)로 이덕수와 동갑으로 함께 공부하고 뛰놀며 늘 같이했던 친밀한 사이였는데 21세에 요절하였다.¹³⁾ 거기에 더해 부인 해주최씨가 8월에 병중에 출산하여 산아가 죽은 뒤로 병이 심해져 10월에 스물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이덕수는 하늘이 차마 어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며 비통해하였다.¹⁴⁾ 게다가 그해가 다 가기도 전에 아저씨뻘 되는 심면중이 유명을 달리하자¹⁵⁾ 이덕수는 도리어 그에게 어찌하여 한 해 동안 눈물이 마를 겨를조차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리 허망하게 가버리는지 마치 믿기지 않는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다며 하소연하였

-
- 12) 李德壽, <外王考贈左贊成沈府君 外王妣贈貞敬夫人韓山李氏合葬墓誌>, 『西堂私載』卷10, “府君有一男一女, 男濡 弘文館應教贈領議政, 女適參判贈史曹判書李徵明. 議政娶大提學樂靜趙公錫胤女 生三男二女 男長齊賢 三陟府使, 次壽賢 議政府領議政, 次景賢 進士早夭.”; 金柱臣, 『壽谷集』 권8, <祭沈季行景賢文 代衍之作. 癸酉(1693)>
- 13) 李德壽, <再從兄施老氏墓誌銘>, 『西堂私載』卷9, “公性純實簡默, 類若有成, 而竟夭折, 卒于癸酉九月十七日, 得年堇二十一. …… 公與余同年生, 而先余三月. 凡讀書嬉遊, 未嘗不與之同.”
- 14) 李德壽, <亡妻海州崔氏墓誌銘>, 『西堂私載』卷9, “癸酉, 孺人有身八月而病, 婉而子死, 因悲悼傷歎 病以轉劇, 至其年十月八日, 竟不起, 得年二十. 嗚呼痛哉! …… 吾何咎而天之忍而爲是也. 嗚呼哀夫!”
- 15) 이덕수의 집안은 수 대에 걸쳐 청송심씨와 인척 관계를 맺어왔다. 증조할아버지 李行健이 재취로 청송심씨와 혼인한 후 2남(이만웅, 이만중)을 두었으며(金昌協, <同知中樞府事李公墓表>, 『農巖集』卷28, “初娶全州李氏, 再娶青松沈氏, 生二子, 萬雄文科觀察使, 萬鍾學生早夭.”), 할아버지 李萬雄은 徐景霽의 딸 대구서씨와 혼인하여 2남(이정명, 이징하) 4녀를 두었는데, 큰아들 이정명은 沈若漢의 딸 청송심씨와, 큰딸은 沈權과 혼인하였다.(金壽恒, <觀察使李公行狀>, 『文集』卷21, “公配徐氏, 大丘望族, 達城尉諱景霽之女, 忠肅公諱渚之孫, 宣祖大王之外孫女也. 有二男四女, 男長徵明進士, 次徵夏. 女長適沈權, 次適李世熙, 鄭重震 韓世良.”) 그리고 이징명은 2남(이덕수, 이덕해) 1녀를 두었는데, 큰딸은 沈鳳儀(1666~1738)와 혼인하였다. 이덕수는 1남(이산배) 3녀를 두었는데, 둘째 딸이 沈命哲의 아들 沈鎔과 혼인하였다. 심면중은 아저씨뻘 되는 친인척으로 보인다.

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것은 당연한 하늘의 이치임을 잘 알고는 있지만, 진정 사람의 생명이란 게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아 오래 살기가 그리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하늘은 도대체 사람에게 수명을 주는데 있어 왜 그리 공평하지 않은 것인지 천도와 천명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이렇듯 『서당사재』는 계유년(1993)에 겪은 충격으로 초래된 사람들의 수명[천명]에는 왜 길고 짧은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러한 이치[천도]는 대체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과 고민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이덕수가 계유년 이전에 지은 시를 한 수도 수록하지 않고 <叔沈勉仲挽>을 문집의 첫 작품으로 선정하여 수록한 것은 천도와 천명에 대한 그의 관심과 고민이 반영된 편집 의도였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문은 차후 단명한 사람들에 대한 상당량의 만시와 비지문 등에서 줄곧 제기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고민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덕수의 문집에 수록된 만시, 제문, 애사, 비지문 속 인물 중에서 이덕수보다 나이가 적은 인물들 가운데 36세 이전에 단명한 사람들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문집 속에 수록된 단명한 인물

이름	관계	享年	수록 작품 (시), 「문」, *『西堂先生集』	참고사항
海州崔氏 (1674~1693)	初娶	20	<亡妻海州崔氏墓誌銘>	父:崔翼瑞(1645~1684) 兄:崔尙健(1668~1714)
李德海(1689~1715)	남동생	27	<憶昔亡弟>, *『祭亡弟文』, *『又告亡弟墓文』, 「亡弟大 仲墓表」, 「亡弟大仲墓誌銘」	妻:朴泰輔(1654~1689)의 딸
李山培(1703~1732)	아들	30	<自悼 三絶> 3수, <省亡兒墓> 「亡兒墓誌銘」, *『題亡兒眞』	丈人:鄭錫祚(1673~1714)
崔祉興(1695~1725)	첫째 사위	31	「崔祉興墓誌銘」	父:崔尙健(1668~1714)

沈氏妻(1706~1722)	둘째 딸	17	<赴水城路過亡女墓下>, 「亡女沈氏婦壙誌」	媿父:沈命哲(1688~1726)
李元培(1701~1719)	당질	19	「堂姪元培墓誌銘」	父:李德孚(1675~1733)
李德普(1673~1693)	재종형	21	「再從兄施老氏墓誌銘」	父:李徽猷(1645~1694)
李寅培(1691~1724)	재종질	34	「再從姪寅培墓誌銘」	父:李德普(1673~1693)
沈鈺(1686~1710)	외종질	25	*「沈士章哀詞」	父:沈齊賢(1661~1713)
沈鏞(1688~1707)	외종질	20	<沈鏞挽詩>	沈鈺의 弟
郭鎭漢(1671~1704)	동서	34	「學生郭公墓誌銘」	妻:姜晉相(1652~1718)의 장녀(이덕수 再娶의 언니)
任桂得(1719~1729)	친구 아들	11	「任童子壙記」	父:任選(1683~1740)
金重鎭(1720~1731)	지인 요청	12	「金童子墓表」	父:金學萬
尹衡國(1712~1730)	후배 아들	19	*「尹秀才墓誌銘」	父:尹敬夏
金崇謙(1682~1700)	선배 아들	19	*「金君山哀詞」	父:金昌協(1651~1708)
李沍(1710~1731)	후배	22	「贈瀛萊君墓碣銘」	父:海安君 李億
崔粹麟(1720~1742)	친구 손자	23	「崔祥甫墓誌銘」	祖:崔尙健(1668~1714)
吳大觀(1711~1734)	동료 아들	24	*「吳大觀哀詞」, *「兵曹佐郎 吳君墓誌銘」	父:吳光運(1689~1745)
尹志淳(1666~1690)	친구	25	「進士尹公墓誌銘」	父:尹敍績(1636~1695)
尹鼎國(1711~1735)	친구 아들	25	「通德郎尹君墓碣銘」	父:尹敬龍(1686~1743)
尹敬宗(1680~1705)	친구	26	「進士尹君墓表」	父:尹志和(1660~1704)
鄭壽玄(1707~1733)	친구 아들	27	*「鄭秀才墓誌銘」	父:鄭光賓(1673~1736)
崔尙履(1692~1720)	선배 아들	28	「司憲府持平崔君墓碣銘」	父:崔奎瑞(1650~1735)
李瀼(1691~1719)	선배 아들	29	<李生瀼挽>	祖父:李選(1632~1692) 外祖父:洪重箕(1650~1706)
李顯益(1678~1717)	친구	30	<李仲謙挽>	父:李泓(1707~1786)
李景奎(1673~1703)	친구	31	<李文甫挽>, 「李文甫墓誌銘」	父:李樟
洪濟猷(1689~1721)	제자, 동생 친구	33	<洪仲經挽> 4수, 「愛懶子墓表」	父:洪致中(1667~1732)
尹彥教(1687~1719)	후배	33	「成均生員尹君墓碣銘」	父:尹扶(1656~1727)
李眞源(1676~1709)	친구	34	<李子深挽> 「翊衛司侍直李公墓誌銘」	父:李德成(1655~1704)
金道洙(1699~1733)	제자, 아들 친구	35	*「祭金士源文」	金佑明(1619~1675)의 庶孫
權益聖(1681~1715)	친구	35	「成均進士權君墓碣銘」	父:權斗紀(1659~1722)
申靖夏(1681~1716)	친구	36	<申正甫挽>	父:申琬(1646~1707)
鄭光殷(1698~1733)	제자, 아들 친구	36	*「祭鄭質夫文」, *「司憲府持平鄭君墓誌銘」	祖父:鄭純陽(1634~1686)

Ⅲ. ‘天道’에 대한 이덕수의 인식

‘天道’에는 ① 하늘의 바른 도리[天理], 하늘의 뜻[天意], ② 자연계의 변화 규율, ③ 징조를 나타내는 천문 현상, ④ 날씨나 기후, ⑤ 시기나 때, ⑥ 정세나 형세, ⑦ 불교에서 말하는 六道의 하나 등의 의미가 있다.¹⁶⁾ 이덕수가 망자를 위해 쓴 시문에서 천도는 주로 ‘하늘의 바른 도리,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天道, 天, 道, 理, 物理, 常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천도에 대한 이덕수의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람들은 보통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못된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린다는 ‘福善禍淫’¹⁷⁾을 당연한 하늘의 도리[天道]로 받아들이고 마땅히 그러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모순되게도 세상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기에 사람들은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게 된다. 그리하여 문인들이 망자를 위해 쓴 시문에는 선한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탄식이 담겨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¹⁸⁾ 이덕수 역시 죽마고우였던 李景奎(1673~1703, 字:文甫)¹⁹⁾가 31세에 요절하자 그 만사에서 안회와 도척을 언급하며 천도에

16) 漢語詞典(來源: 千篇國學·漢語詞典 <https://cidian.qianp.com/>)에서 ‘天道’의 뜻을 찾아보면, ① 猶天理·天意, ② 指自然界變化規律, ③ 指顯示征兆的天象, ④ 氣候·天氣, ⑤ 時光·時候, ⑥ 局勢·形勢 ⑦ 佛教所說六道之一 등의 의미가 있다.

17) 『書經』 「湯誥」, “天道, 福善禍淫, 降災于夏, 以彰厥罪.”

18) 일례로, 송상기(1657~1723)는 송시열의 손자 송서구(1650~1692)에 대한 제문을 “아아,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못된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과연 하늘의 이치인가? 내가 보기에는 아득하기만 하여 믿지 못하겠다.”로 시작한다. (宋相琦, <祭宋敘九文>. 『玉吾齋集』 권16, “嗚呼! 福善禍淫, 斯果天理也耶? 以余觀之, 一何茫茫而不可恃也.”)

19) 이덕수는 11세(1783년) 때에 한양으로 이사 온 후 동갑내기인 이경규(1673~1703)

대한 의심을 제기한다.

며칠 전에 그대의 병이 약으로 고치기 어렵단 말 듣고, 日聞君病藥難痊
오직 착한 사람에게 복 준다는 천도를 깊이 믿었건만, 唯恃高高福善天
이런 아득한 이치, 이제 와서 따져 물을 수도 없네. 此理冥夢今莫詰
안자는 요절하고 도척은 장수했듯, 본래 그런 것이니. 顏窮跖壽向來然²⁰⁾

이덕수는 착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천도를 믿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천도란 것
은 본래부터 그러했던 것이니 의심을 가져도 따져 물을 수도 없다는 현
실 역시 인지하고 있다. 또한 尹彦教(1687~1719)의 묘갈명에서는 “어
찌 재주는 그리 빼어나게 주시고는, 어찌 수명은 그리 인색하게 주셨던
고. 재주도 하늘에서 주신 것이고, 수명도 하늘에 묶여 있는 것인데, 하
나는 주고 하나는 빼앗으니, 하늘은 무슨 까닭에 그리하시는가?”²¹⁾라
며 하늘의 무심함에 원망 섞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덕수가 천도에 대한 당시 세간의 인식을 상황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또 그에 반박한 글이 있어 주목해 볼 만하다. 그 글은 바로
<吳大觀哀詞>로, 남인계열의 관료인 吳光運(1689~1745, 字:永伯, 號:
藥山)의 아들 吳大觀이 1734년 24세로 요절한 후 이덕수가 그를 애도

와는 같은 동네에서 살며 같은 글방에서 함께 공부하였으며 하루만 만나지 않아도
서로 서운하게 생각하여 찾아다니곤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 李德壽, <李文甫
墓誌銘>, 『西堂私載』 卷10, “余幼從先君子 久居砥平之釜淵, 及年十一而至京, 始
與文甫定交. 文甫與余同生於癸丑七月, 而其日差先於余. 遊同方學同業, 苟一日不
相見, 則其心悵然不樂也.”

20) 李德壽, <李文甫挽> 10수 중 제1수, 『西堂私載』 卷1.

21) 李德壽, <成均生員尹君墓碣銘>, 『西堂私載』 권7, “曷豐厥才, 曷蓄厥年, 才天攸畀,
年亦繫天, 一與一奪, 天曷故焉.”

하며 쓴 글이다. 오광운은 1735년에 이덕수가 두 번째로 대제학이 되었을 때 홍문관 제학으로 추천한 인물로, 당시 당파를 초월한 파격적 추천이라 논란이 있기도 하였다.²²⁾ 이덕수는 이 애사를 쓰면서, “아아, 그대의 죽음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애통해하는데 하물며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나도 일찍이 이러한 슬픔을 겪었으니 내가 슬퍼했던 마음으로 영백을 슬퍼하면 이는 다른 사람들이 영백을 슬퍼하는 것과는 다르리라.”²³⁾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자신 역시 1732년에 아들 이산배를 잃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자식 잃은 아버지의 비통함을 잘 알기에 오광운을 조금이라도 더 위로해주고자 하는 동병상련의 아픔이 담겨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천도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아들을 잃고 천도와 천명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聖인이 말하기를 ①“어진 자는 반드시 오래 산다.”고 한다. 세상에서는 늘 말하기를, ②“착한 사람은 반드시 선함에 대한 보답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늘 세상에서 그 증거를 찾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많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이치란 말인가? 혹자는 말한다. “어진 자는 오래 살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은 떼뻗은 이치이다. ③ 혹시 어진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그 아들과 손자에게 보답이 있다.” 그러나 그대와 같은 자는 또 아들도 없으니 장차 그 보답을 받을 사람도 없다. 혹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혀버린다. 혹자가 또 ④“비록 아들과 손자가 없더라도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드리우면 아들이 있으면서 이

22) 『영조실록』 영조 12년 병진(1736) 12월 16일 기사, <홍문관 제학 오광운이 봉당 특실의 다름에 분개하여 사직하니 윤택하지 않다.> 참조.

23) 李德壽, <吳大觀哀詞>, 『西堂先生集』, p.140, “嗚呼! 若君之死, 世皆哀之, 況其父母之心乎? 以余之嘗有斯戚也. 以所自悲者而悲永伯, 則其與他人之悲永伯者, 爲不類矣.”

름이 없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라 말한다. 만일 그대에게 몇 년을 빌려주어서 세상에 스스로 우뚝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혹자의 말이 약간은 맞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제 그대가 약관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 비록 남보다 뛰어난 자질이 있었다 해도 후세 사람 중 또 누가 알아주겠는가? 여기서 그 말이 또 막힌다.²⁴⁾

‘애사’는 불행하게 죽은 사람이나 어릴 때 요절한 사람을 애도하는 한 문문체로, 대체로 앞의 序에서 망자의 생평과 생전의 재덕, 死因 등을 기록하고, 뒤에 운문의 문구로 슬픔의 정서와 고통을 적는 것이 서술의 순서이다. 위의 글은 序의 일부분이다. ① “어진 자는 반드시 오래 산다.”는 『논어』의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며, 지혜로운 자는 동적이고 어진 자는 정적이며, 지혜로운 자는 즐겁게 살고 어진 자는 장수한다.”²⁵⁾에서, ② “착한 사람은 반드시 선함에 대한 보답이 있다.”는 『서경』의 “하늘의 도는 선인에게 복을 내리고 악인에게 화를 내린다.”와 『도덕경』의 “천도는 치우침이 없어, 늘 선한 사람을 돕는다.”²⁶⁾ 등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덕수는 이 두 가지 명제에 대해, 이 세상에서의 실상은 어진 자가 반드시 오래 사는 것도 아니며, 착한 사람에게 반드시 선한 보답이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증거는 이미 세상에 많이 있으므로 천도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니

24) 위의 글, “聖人之言曰, ①‘仁者必壽’. 世之恒言亦曰, ②‘善人必有善報.’ 然常以驗於世多不能, 然是何理也. 或曰, ‘仁而壽善 而福常理也. ③ 其或仁而不壽 善而無福 則必其報在乎其子若孫.’ 然若君者且無子, 將無所責其報, 或者之說, 至是而窮矣. 或又曰, ④ ‘雖無子若孫, 固有令譽垂於後世, 不猶愈於有子, 而無名乎?’ 使君而少假之年, 有以卓然自見於世, 則或者之說, 尙爲有徵, 今君殞其生於弱冠之年, 雖有過人之姿, 後之人又孰能知之? 至是而其說又窮矣.”

25) 『論語』「雍也」,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26) 『書經』「湯誥」, “天道, 福善禍淫.”; 『老子道德經』 79장, “天道無親, 常與善人.”

라고 반박한다.

③ “혹시 어진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그 아들과 손자에게 보답이 있다.”는 蘇軾이 지은 <三槐堂銘>의 “하늘의 뜻이 반드시 실현된다고 하겠는가? 현명한 사람이 반드시 귀해지지 않는고, 어진 사람이 반드시 오래 살지는 않고 있다. 하늘의 뜻은 절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인가? 어진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후손이 있게 된다.”²⁷⁾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덕수는 이에 대해서도 오대관의 경우는 자식마저 없으니²⁸⁾ 그 보답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그 말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④ “비록 아들과 손자가 없더라도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드리우면 아들이 있으면서 이름이 없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는 유가에서 강조하는 ‘三不朽’ 즉, “최상의 것은 덕을 세우는 것[立德]이요, 그다음은 공을 세우는 것[立功]이요, 그다음은 말을 세우는 것[立言]이다. 세월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폐기되지 않는 이것을 불후라 한다.”²⁹⁾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덕수는 이에 대해서도 만일 오대관이 몇 년을 더 살아서 덕으로든, 공으로든, 말로든 세상에 이름을 떨쳤더라면 그러한 논리가 일변 맞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대관은 뛰어난 재주와 자질을 제대로 펼쳐볼 겨를도 없이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 그 누가 그를 알아주겠느냐며 다시 반박한다.

①~③은 유가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천도로 ‘德福一致’의 입장이라

27) 蘇軾, <三槐堂銘>, 『古文眞寶後集』卷8, “天可必乎? 賢者不必貴, 仁者不必壽. 天不可必乎? 仁者必有後.”

28) 李德壽, <兵曹佐郎吳君墓誌銘>, 『西堂先生集』, p.388, “娶平康蔡氏正言膺萬女不育.”

29) 『春秋左傳』襄公24年, “大上有立德, 其次有立功, 其次有立言, 雖久不廢, 此之謂不朽.”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의적인 이덕수는 ‘德福不一致’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④는 유가들이 ‘덕복불일치’의 불공정함과 억울함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³⁰⁾ 이덕수는 이마저도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자세를 취한다. 이는 조선후기의 성리학자 趙翼(1579~1655)³¹⁾이 39세에 세상을 뜬 李誠立(1573~1611, 字:明叔)의 銘에서 “안연은 요절하고 도척은 장수하였으니, 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마는, 하늘에 속한 운명이야 어떻게 하리오. 내게 허물이 없으면 그 만이지. 아! 명숙이여! 죽어도 슬퍼할 것이 뭐가 있으리오. 게다가 내가 이렇게 명을 지었으니, 이는 이 없다고 걱정할 것도 없으리다.”³²⁾라며 천도에 대해 의심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유가적 차원에서 해명하고 극복해 내는 모습³³⁾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자세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덕수의 천도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유가에서 바라보는 천도에 대한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의심 또한 거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것을 성리학자나 도학자처럼 도덕 인격의 배양과 도덕 행위의 실천 즉 仁道의 완성이나,³⁴⁾ 도덕

30) 유가의 ‘德福不一致’에 대해서는 정병석의 「논어와 장자에 보이는 죽음관」(pp.48~61.) 참조.

31) 조익은 朱子の『四書集註』 체제에 따라서 사서 전체를 주석한 조선시대 初有의 四書註釋書(『大學困得』, 『中庸困得』, 『論語淺說』, 『孟子淺說』)를 저술한 사람으로 조선중기의 대표적 성리학자이다. (임재완, 「浦渚 趙翼의 四書學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11.)

32) 趙翼, <戶曹佐郎李君墓誌銘>, 『浦渚集』 卷32, “顏夭蹠壽, 天道難究, 在天何爲, 在我無疚. 吁嗟明叔! 死亦何悲, 我又銘之, 不患不知.”

33) 조익은 여기서 『論語』 「顔淵」편에 나오는 “內省不疚, 夫何憂何懼.”(자기의 내면을 살피서 허물이 없다면야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으랴.)와 「學而」편에 나오는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까 걱정할 것이 아니요,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할까 걱정해야 할 것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유가 사상을 표출하고 있다.

의 차원으로부터 죽음의 가치와 의미를 중시하는³⁵⁾ 등의 유가적 사상을 가지고 천도를 해명하지 않음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덕수는 천도에 대해 ‘천도는 사람들이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라 여기며 올바르게 믿는 하늘의 이치이고 도리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믿고 기대하는 만큼 그대로 실현되고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하기에 예로부터 사람들이 천도에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천도가 지켜지느냐 어긋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IV. ‘天命’에 대한 이덕수의 인식

‘天命’에는 ① 하늘의 의도나 하늘이 주재하는 운명, ② 자연의 규율이나 법칙, ③ 고대에 임금(통치자)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나 명, ④ 타고난 천성이나 천품, ⑤ 인간이 타고난 수명 등의 의미가 있다.³⁶⁾ 이 중에서 이덕수가 망자들을 위해 쓴 작품에서 命 혹은 天命은 ‘인간이 타고난 수명’과 ‘하늘이 주재하는 운명’이란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데, 본고의 주대상이 단명한 망자이다 보니 이 둘이 의미가 혼합되어 나타

34) 조원일, 「공자의 천도론 사상에 대한 연구」, 『울곡학연구』 제39집, 울곡학회, 2019, p.216.

35) 신진식, 「중산계 신종교와 유교, 도교의 죽음관 비교」, 『한국철학논집』 제58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8, p.208.

36) 漢語詞典(來源：千篇國學·漢語詞典 <https://cidian.qianp.com/>)에서 ‘天命’의 뜻을 찾아보면, ‘天命’의 뜻을 찾아보면 ①上天之意旨；由天主宰的命運, ②指自然的規律法則, ③古以君權爲神授, 統治者自稱受命於天, 謂之天命, ④謂天賦, ⑤猶天年, 謂人之自然壽命 등의 의미가 있다.

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서는 천명에 대한 이덕수의 인식을 수명으로서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천명과 운명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나는 천명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요절한 이들의 천명에 대한 이덕수의 인식

부모된 사람에게 자신보다 앞서 세상을 뜨는 자식의 죽음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통한 일이다. 이덕수는 단명한 사람들의 천명은 왜 그러한 것인지 그 이유를 찾아 설명하며 망자를 애도하고 그 부모를 위로하는 시문을 다수 남겼다. 그러한 시문에서의 천명은 ‘인간이 타고난 수명’이란 의미와 ‘인간이 타고난 운명’이란 뜻 모두로 해석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시문에서 일찍 죽었음을 의미하는 ‘殤’, ‘夭’ 등이 직접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거기에는 인간이 타고난 수명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下殤³⁷⁾에 해당하는 11살에 세상을 뜬 任桂得(1719~1729)을 위해 쓴 <任童子壙記>도 그중 하나이다. 여기서 이덕수는 “세상에서 재주가 있으면서 요절한 사람을 논하는 데에 반드시 이런 말을 한다. 물건이 너무 깨끗하면 더러움을 타기 쉽고, 기운이 너무 맑으면 흩어지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中古 때에도 이미 그러하였거늘 하물며 지금 세상에 내려와 풍속 흐려짐에랴. 아이의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였으니 그 어찌 세상에 오래 있을 수 있었겠는가? 아아,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그러한가?”³⁸⁾하며 의문을 가지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37) 상상(殤喪)은 8세부터 19세 사이에 죽은 경우를 말하는데, 19세부터 16세까지를 長殤이라 하고, 15세부터 12세까지를 中殤이라 하고, 11세부터 8세까지를 下殤이라고 하며, 8세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服이 없다.(『儀禮 喪服』)

말을 수궁할 수밖에 없다는 듯 임계득의 요절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이 덕수는 鄭壽玄(1707~1733)의 묘지명에서는 “내가 듣기로는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 때에는 부모가 자식을 먼저 잃지 않는다고 하던데, 어찌서 근세에는 이런 슬픈 일을 겪는 일이 많단 말인가? 풍기가 점점 어지러워짐에 따라 사람이 하늘로부터 품부 받은 것이 박해서 그러한 것일까?”³⁹⁾라며 혼탁해진 세상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덕수가 ‘세상에서 재주가 있으면서 요절한 사람을 논하는 데에 반드시 이런 말을 한다’고 예로 든 논리는 동시대의 문인 李觀命(1661~1733)이 쓴 <李生瀆哀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관명은 어리지만 재주가 있던 외손자 이해(1691~1719)를 잃고 슬퍼하는 누나를⁴⁰⁾ “살다가 죽는 것은 보편적인 이치입니다.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고 장수하거나 요절하는 수명이 그사이에 뒤섞여 있는 것은 또한 가지런하지 않은 형세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구나 氣가 맑은 자는 쉽사리 흩어지고 자질이 고운 자는 쉽사리 이지러집니다. 사람이 이런 기질을 부여받고 태어나 오래 살지 못한 자가 왕왕 많이 있으니 조물주의 장난에 어떻게 하겠습니까?”⁴¹⁾라는 말로 위로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당대의 사람들에

38) 李德壽, <任童子壙記>, 『西堂私載』卷9, “任童子名桂得, 死時年十一, 殤也. ……世之論才而早夭者 必曰, ‘物潔則易汚, 氣清則易散.’ 此在中古而已然, 況今世下而俗漓. 兒之慧又特異於人, 其何能久於世? 嗚呼! 其誠然乎? 其誠然乎?”

39) 李德壽, <鄭秀才墓誌銘>, 『西堂先生集』, p.378, “吾聞至治之世, 父不哭子, 何近世罹斯戚者多歟? 豈風氣漸漓, 人之稟於天者薄而然歟.”

40) 이관명의 누나는 洪重箕와 결혼하였는데, 그 딸이 李昌輝와 결혼하여 李瀆을 낳았다.

41) 李觀命, <李生瀆哀辭>, 『屏山集』卷15, “我姊氏喪其女之子幼而才者, 哭之若己出. 余間馳往慰之曰, ‘生之有死, 理之常也. 適來適去, 久速之期, 參錯於其間者, 亦不齊之勢然也. 況氣清者易散, 質妍者易虧. 人得此以生不能久者往往多有之, 其於造物

게 보편적이었던 듯하다. 이덕수 역시 이해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시 <李生瀼挽>를 지었는데, 그 수련에서 “천품이 고우면 하늘이 항상 해하고, 재주가 뛰어나면 귀신이 쉽게 성난다고 하더구나.”(質美天常暭, 才高鬼易嗔.)라며 이해의 죽음을 해명하였다.

이덕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유 말고도 자기 스스로 그 이유를 구명해 보려 노력하였다. 이는 崔尙履(1692~1720, 字:季綏)의 묘갈명에서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최상리는 최규서(1650~1735)의 6번째 아들로, 경인년(1710)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계사년(1713) 증광문과에 을과로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며, 1720년 8월 29일 29세에 요절하였다. 부친인 최규서가 1720년 그의 행장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으며,⁴²⁾ 이덕수는 그 행장을 토대로 묘갈명을 지었는데, 그 서두에서 높은 재주를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요절한 최상리의 천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찾아 설명하였다.

내가 세상사에 대해 알기 시작한 뒤로, 항상 빼어난 재주나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이 일찍 죽어서 그 재주를 펼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이는 기이한 보배가 깨어진 것보다 더 통곡하게 만든다. 나는 그 까닭을 하나도 알 수가 없어 시험 삼아 꽃을 심어 보았다. 꽃이 곱게 피는 종류가 반드시 일찍 시들어 기르기가 어려웠지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은 곧 천한 것이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物理]란 본래 이러한 것으로 괴이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며, 무릇 사람도 빼어나고 맑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최근 계수의 죽음을 통해 그러한 이치를 더욱 믿게 되었다.⁴³⁾

之戲劇何哉?”

42) 崔奎瑞, <亡兒持平行狀 庚子>, 『艮齋集』 卷12.

43) 李德壽, <司憲府持平崔君墓碣銘>, 『西堂私載』 卷7, “自余省事以來, 恒見高才絕

이덕수가 이 묘갈명을 저술한 것은 최상리가 세상을 뜨고도 대략 20년이 흐른 후인데⁴⁴⁾ 그렇다면 이덕수가 68세 무렵이다. 따라서 이 글에는 그만큼 이덕수 평생의 경험과 통찰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덕수는 빼어난 재주나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이 일찍 죽는 이유는, ‘곱게 피는 꽃이 일찍 시드는 것처럼 사람도 빼어나고 맑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세상의 이치 때문이라고 믿는다. 괴이해 보여도 세상의 이치란 본래 그러한 것임을 노령의 나이가 되어서는 새삼 깨닫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덕수는 요절한 사람들의 천명에 대해서는 물건이 너무 깨끗하면 더러움을 타기 쉽고 기운이 너무 맑으면 흩어지기 쉬우며, 곱게 피는 꽃이 일찍 시드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남들보다 빼어난 품성과 재주를 가진 이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수명[천명]이 그것뿐이므로 인간으로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인식하였다. 이는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뜬 이들의 죽음이 그 누구의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시기해서 그런 것이거나 하늘의 뜻일 뿐임을 밝힘으로써 그 죽음에 대한 충격과 비통함을 완화 시키는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識，多天闕不遂，使人幾失聲於奇壁之隕毀。余壹不知其故，嘗試種花。其品之佳者，必易枯難養，其菀則乃所賤也。乃知物理有如此者無怪，夫人之秀而清而不享厚年。今於崔君季綏之逝 尤信其然。”

- 44) 최규서가 쓴 행장에서는 최상리의 아들이 겨우 40일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덕수가 쓴 묘갈명에서는 최상리의 아들 최재홍이 ‘이석희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어리다.’고 하고 있으므로 대략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2. 운명으로서의 ‘천명’에 대한 이덕수의 인식

앞에서 다룬 천명이 ‘타고난 수명’이라는 의미로 주로 해석되는 반면, 이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천명은 타고난 수명이란 의미에 더해 타고난 운명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진다.

이덕수가 친형처럼 따랐던 외사촌 형 沈齊賢(1661~1713)의 맏아들 沈鈺(1686~1710, 字:士章)은 25세에 요절하였다. 이덕수는 <沈士章哀詞>에서 “죽고 사는 데는 길고 짧음이 있으나 하늘이 부여한 바가 아님이 없다. 심옥의 명이 이러하니 어찌하겠는가? …… 심옥의 죽음이 비록 제명대로 다 살지 못한 죽음이라 해도 애초에 명이 아닌 명이 없으니 어찌 그로부터 달아날 수 있겠느냐?”⁴⁵⁾며 인간의 수명은 그것이 길든 짧든 모두가 천명이므로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며, 또 그러한 운명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죽고 사는 것은 命이다. 그것은 마치 밤과 낮의 교대가 일정한 것처럼 자연적인지라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바가 있으니 이것이 모든 사물의 실상이다.”⁴⁶⁾라는 장자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이덕수가 1732년에 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의 아들 이산배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무서우냐? 사람의 수명의 길고 짧음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다. 육칠십을 살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 아래에서는 어릴 때 죽는 사람도 있고, 스물에 죽는 사람도 있고, 삼사십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

45) 李德壽, <沈士章哀詞>, 『西堂先生集』, p.138, “雖然死生脩短無非天所命, 君其如命何哉. …… 君之死雖若非命, 而未始非命命, 其可逃乎?”

46) 『莊子』「大宗師」, “死生, 命也, 其有夜旦之常, 天也. 人之有所不得與, 皆物之情也.”

들쭉날쭉하여 가지런하지 못한 것이 천명이다. 너는 비록 위로는 부족하지만, 아래와 비교하자면 남음이 있는 것이니, 마땅히 운명에 맡기고[安命] 분수를 지키어 생사를 마음에 두지 말고 가슴 속을 평탄히 하여 얽매임이 없게 하여 억지로라도 약을 들어서 조치할 방법을 다하여라”⁴⁷⁾

이덕수는 사람의 타고난 수명이란 것은 본래 들쭉날쭉한 것이어서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하늘이 정한 운명에 생사를 맡기고 분수를 지켜 마음을 평안히 해야 한다고 아들을 타이른다. 이는 “그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 명에 편안해 하는 것이 덕의 지극함이다.”⁴⁸⁾라는 장자의 ‘安命’의 입장과 유사하다. 안명은 운명의 존재를 인정하여 그대로 따른다는 자세이며,⁴⁹⁾ 명을 어떤 예정된 결정성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있는 상관성으로 이해하여 그 상관성 속에 자신을 편히 맡기는 태도이다.⁵⁰⁾ 그러나 장자의 안명론은 도가적 배경과 더불어 유가적 배경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운명을 주제로 한 것은 유가 쪽의 영향이고, 운명에 대한 대응 자세로서 ‘안명’을 주장한 것은 도가 쪽의 영향이다.⁵¹⁾ 유가와 도가 모두 운명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운명적 사태를 처리하는 자세에서는 차이가 난다. 공자의 ‘知命’은 운명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자신의 소임을 수행해 나가는 자세인 반면,

47) 李德壽, <亡兒墓誌銘>, 『西堂私載』 卷10, “若怖乎? 人生修短, 已定於有生之初. 其能至六七十難矣, 其下則或有稚孩死者, 有冠而死者, 有至三四十者, 其參差不齊, 天之命也. 若雖上方不足, 而下比有餘矣, 當安命順分, 置死生於度外, 使胸中坦然無所係, 強進藥物, 以盡調治之道.”

48) 『莊子』 「人間世」, “知不可奈何, 而安之若命, 德之至也.”

49) 이석현, 「동양사상의 운명론 쟁점 - 유불도 삼교사상을 중심으로」, p.403.

50) 정병석, 앞의 논문, p.68.

51) 이석현, 앞의 논문, p.406.

장자의 ‘安命’은 운명의 존재를 인정하여 그대로 따른다는 자세이다.⁵²⁾

이덕수가 ‘안명’을 이야기하며 죽음을 앞둔 아들을 위로한 것은 아들 이산배가 장자의 사상에 깊이 심취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덕수가 아들의 묘지명에서 “아들 산배가 한 번은 <壽夭說>을 지었는데 거기서 ‘100세 늙은이가 10세에 죽은 사람을 진정 일순간이라고 할 것이다. 800세를 산 팽조가 100세를 산 노인을 보는 것은 100세를 산 노인이 10세를 산 사람을 보는 것과 똑같다. 10세, 100세, 800세에서 천세, 만세에 이르기까지 확장 시킨다면 한마당 꿈에 지나지 않는다. 꿈이 기나 짧으나 하는 것은 또 무엇이 논할 것이 있겠는가?’라 하였는데, 이는 마치 그가 거의 자신의 생을 스스로 위로한 것만 같았다.”⁵³⁾라고 소개한 일화에서 그러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서종태가 1691년 이덕수에게 준 글에서 “이덕수는 자질이 민첩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약간의 나이에 이미 문장이 뛰어났으며 …… 도가의 여러 서적에 해박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부지런히 그 말뜻을 깊이 음미하였다.”⁵⁴⁾고 한 것에서 이덕수 역시 젊어서부터 도가의 사상에 심취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덕수는 죽음을 앞둔 아들을 위로할 만한 가장 그럴듯한 논리를 장자에게서 찾은 것이며, 그 논리로 아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자신의 비통함을 달랠던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52) 위의 논문, p.403.

53) 李德壽, <亡兒墓誌銘>, 『西堂私載』卷10, “嘗作壽夭說曰, ‘使百歲老觀十歲殤, 固爲一瞬間. 使八百歲彭祖觀百歲老, 與百歲老觀十歲殤等耳. 十歲百歲八百歲, 推而至於千齡萬齡, 都不過一夢. 夢之延與促, 又何足論?’ 其言殆若自慰其生.”

54) 徐宗泰, <贈李弟仁老小序 辛未春(1691)>. 『晚靜堂集』卷11, “中表弟全城李仁老, 資敏而嗜學 …… 又博綜道家諸書, 窮日夜, 亶亶不自休, 深味乎其言之也.”

운명으로서의 ‘천명’에 대해 이덕수는 사람의 수명이 그러하듯이 사람의 운명 역시 이미 하늘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다고 인식한다. 이는 운명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며, 운명에 대한 이덕수의 자세는 도덕적 수행을 중시하는 공자의 ‘지명’보다는 운명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는 장자의 ‘안명’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이덕수는 18세기 전반 소론계를 대표하는 관료 문인으로 당대 문장가로 명망이 높았던 인물이다. 특히 그는 금석문 저술에 뛰어나 그에게 묘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본고에서는 이덕수가 남긴 만시, 제문, 애사, 비지문 등 망자를 위해 지은 시문 중에서도 36세 이전에 단명한 이들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거기에서 보이는 이덕수의 천도와 천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천도는 하늘의 바른 도리, 천명은 인간이 타고난 수명 혹은 인간이 타고난 운명이라는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단명’은 그 자체가 천도와 천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만큼 비통한 일이다. 이덕수가 단명한 사람들을 위해 다수의 비지문을 저술한 것은 비단 그의 뛰어난 문장력 때문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부인, 동생, 아들, 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경험으로 인해 형제나 자식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망자의 형제나 부모를 조금이라도 더 위로하고 슬픔을 덜어주고자 한 이덕수의 진정한 마음도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서당사재』는 저자인 이덕수 자신이 생전에 시문을 정리하고 자편한 문집인데, 문집에 첫 번째로 수록된 작품은 계유년(1693)에 지은 <叔沈勉仲挽>이다. 이 만시는 이덕수가 계유년에 겪었던 자신의 부인 및 여러 명의 젊은 친인척의 죽음을 경험한 후 지은 것으로 천도와 천명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덕수는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동생과 자식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는 것을 지켜보야 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은 왜 그리 짧은 명을 갖고 태어난 것인가 혹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왜 그것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리 일찍 세상을 떠나야 했는가 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고민했다. 따라서 이덕수가 그 이전에 지은 시를 한 수도 수록하지 않고 이 만시를 문집의 첫 작품으로 선정하여 수록한 데에는 천도와 천명에 대한 그의 관심과 고민이 반영된 특별한 편집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천도’에 대한 이덕수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유가에서 바라보는 천도에 대한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의심 또한 거두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것을 성리학자나 도학자처럼 유가적 사상을 가지고 천도를 해명하지도 않는다. 이덕수는 천도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올바른 정의이고 도리이긴 하지만 그것이 지켜지느냐 어긋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며, 그러하기에 의심하고 또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인간이 타고난 수명이란 의미로서의 천명에 대해 이덕수는 요절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물건이 너무 깨끗하면 더러움을 타기 쉽고 기운이 너무 맑으면 흩어지기 쉬우며, 곱게 피는 꽃이 일찍 시드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남들보다 빼어난 품성과 재주를 가진 이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수명이 그것뿐이므로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인식

하였다. 이는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뜬 이들의 죽음이 그 누구의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뜻일 뿐임을 밝힘으로써 그 죽음에 대한 충격과 비통함을 완화 시키는 작용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인간이 타고난 운명이란 의미로서의 천명에 대해서는 사람의 수명이 그러하듯이 사람의 운명 역시 이미 하늘에 의해 결정되어있는 것이므로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운명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며, 운명에 대한 이덕수의 자세는 도덕적 수행을 중시하는 공자의 ‘知命’보다는 운명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는 장자의 ‘安命’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천도와 천명에 대한 이덕수의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본고는 이덕수만의 독특한 인식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아직까지 다른 문인들의 천도와 천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에 이덕수의 시문을 통해 그가 살았던 당대의 천도와 천명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살펴본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천도와 천명에 대한 이덕수의 인식을 성리학자나 종교인과 비교해 본다거나 혹은 이덕수와 다른 인식을 보이는 문인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 인식의 차이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며 천도와 천명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인식을 확인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차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자료

李德壽, 『西堂私載』

李德壽, 『西堂先生集』, 전의이씨청강공과화수회, 2000.

金壽恒, 『文谷集』

金昌協, 『農巖集』

李觀命, 『屏山集』

李裕元, 『嘉梧藁略』

朴世堂, 『西溪集』

徐宗泰, 『晚靜堂集』

宋相琦, 『玉吾齋集』

趙翼, 『浦渚集』

崔奎瑞, 『艮齋集』

『論語』

『史記』

『書經』

『영조실록』

『莊子』

『春秋左傳』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

漢語詞典 <https://cidian.qianp.com/>

2. 논문

이석현, 「동양사상의 운명론 쟁점 - 유불도 삼교사상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85집, 2020, pp.403~406.

임재완, 「浦渚 趙翼의 四書學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11.

이기순, 「고령신씨의 혼인·출산과 수명」, 『한국사학보』 10, 2001, pp.108~109.

정병석, 「논어와 장자에 보이는 죽음관」, 『동양철학연구』 제55집, 동양철학연구회,

2008, pp.68~69.

신진식, 「증산계 신종교와 유교, 도교의 죽음관 비교」, 『한국철학논집』 제58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8, p.219.

Abstract

A Contemplation on Perception on 'Cheondo(天道)' and
'Cheonmyeong(天命)' of Seodang Lee Deok-soo

- Focusing on Works Written for the Short-Lived Deceased -

Lee, Hwang-jin

This article is a contemplation on perception on Cheondo(天道:right-of-way of heaven) and Cheonmyeong(天命:innate life time, innate destiny) of Seodang Lee Deok-soo(1673~1744) who was the representative bureaucrat officer of Soron Faction in the early 18th century with the focus on the written works of the short-lived deceased from the various written works that Lee Deok-soo had written for the deceased.

『Seodangsajae』 is a collection of literature that its author, Lee Deok-soo, summarized poems and literature works and independently edited during his life time, with the first independently edited work on its literature collection is <Suksimyeonjungman> written in 1693. This poem contains inquiries on Cheondo and destiny that it seems to have a special intent of editing arrangement.

Although the perception of Lee Deok-soo on the Cheondo was based on the concept on the Cheondo under the perspective of the Confucian scholar, it had suspicion on the Cheondo continuously and rebutted on the Cheondo. Lee Deok-soo said the Cheondo is the righteous justice and right-of-way that people must practice, but he also seemed to have the perception that it is a separate issue to keep it or not.

With respect to the short-lived deceased, Lee Deok-soo explained that their lives were short-lived one due to the fact that, if a property is too clean, it is easy to get dirty, and if the energy is too clear, it is easy to scattered, and as the splendor of a flower gets early withering away as the way of life in the world, they were born with a short life

span since they have higher level of personal attributes and talent than others.

Lee Deok-soo perceived that the life of a human would be the Cheonmyeong whether is a prolonged one or short one that no human may control over it, and in such a destiny, it would be inescapable one.

Key Words : Seodang Lee Deok-soo, Cheondo(天道:right-of-way of heaven), Cheonmyeong(天命:innate life time), Life span, Destiny, Short-lived deceased

이황진

소속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구전담조교수

전자우편 : ongogsin@hanmail.net

이 논문은 2022년 05월 13일 투고되어
2022년 06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2년 06월 24일 게재 확정됨.